

한국 로타리 역사를 디지털화 한다

3650지구 아카이브화 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3650지구 사료위원장 **신문영**(서울무악RC)
재단법인 운정 상임이사



올해가 한국 로타리 창립 90주년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 로타리의 종주 지구라고 하는 3650지구는 물론, 존9과 존10A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부족했던 게 현실이다.

1927년 11월 10일 경성로타리클럽 창립 이후 일제 강점기 후반과 6·25 전쟁으로 일정기간 단절된 적이 있었지만 그 뿌리는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라도 산재해 있는 90년 사료들을 한데 모으고 체계화하여 한국 로타리 100년을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한국 로타리 90년 역사를 되찾자

종주지구인 우리 3650지구를 중심으로 존9과 존10A 아카이브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준현용 또는 비현용 기록물 가운데 평가를 통해 역사적 가치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들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빙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카이브(Archives)란 무엇인가?

근대에 제도화된 3대 지식 축적 및 보급기관으로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이 있다. 세 기관의 명확한 차이는 수집·소장한 자료의 분류기준과 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다. 그것은

각 기관의 성격과 목적, 소장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대적 의미의 아카이브는 금속활자의 등장으로 인쇄술이 발전하고 대량 인쇄한 책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책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Library)과 원본 문서를 중심으로 한 기록관(Archives)으로 분화되었다.

문자의 보급과 해독 가능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 시민을 위한 지식의 보급기관(도서관)과 분리된 전문 연구자, 고위 정책결정자를 위한 고급 지식의 제공기관(아카이브)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근대국가의 탄생과 성장으로 인해 비밀, 고급 정보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신생 의회가 생산한 문서와 기타 기록물 보존의 필요성 대두된 것이 아카이브 탄생의 배경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시킨 주체가 생산 기록물을 공적 국가유산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789년 9월 프랑스 의회의 시행령으로 프랑스 국립기록원(Archives Nationales)이 창설되었다. 이후 1796년 지방기록관(Archives Départementales) 구축 완료. 1808년 기록관의 분류체제로 도서관 방식의 백과사전식(주제별) 방식 채택, 1841년 주제 분류의 한계를 극복한 풍(fonds, 기록물 덩어리)의 기원과 출처를 존중하는 풍 존중의 원칙(respect des fonds)이 성립되었고, 도서관과 다른 근대적 아카이브 정책, 기관, 이론 등이 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아카이브의 기본단위인 Documents(기록물)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법적, 행정적 업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또는 개인과 집단이 생산·발생하는 보고서, 기안문, 메모와 같은 개별의 서류와 문서, 그림, 필름, 사진,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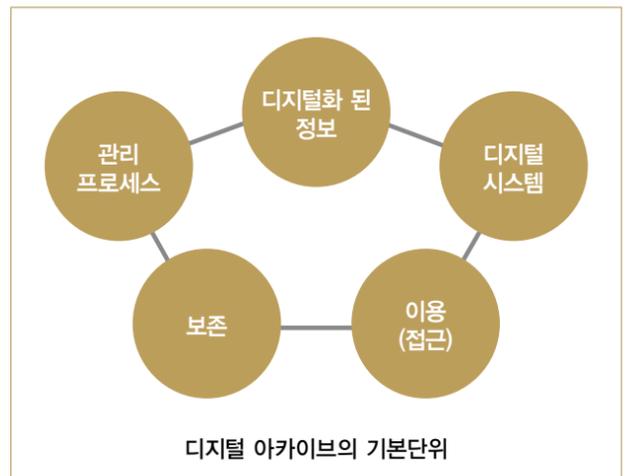


리, 영상 기록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정보로 전환될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전자적 매체를 말한다.

Documents(기록물)은 기록물은 사용가치와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1) 현용 기록 : 기록 생산자의 일상적 활동 및 업무의 사용 기록
- 2) 준현용 기록 : 기록 생산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업무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
- 3) 비현용 기록 : 기록 생산자에게 사용 가능성이 없는 기록물

결국 아카이브란 준현용 또는 비현용 기록물(국가, 단체, 조직, 개인이 생산했지만 당장의 사용가치가 사라진 기록) 중 평가를 통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모아둔 '덩어리' 또는 '기관' 또는 '장소'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과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공간의 제약 극복
 - 정보 가공 용이
 - 이용자 요구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해결과제 등장

- 일부의 기록이나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의 행위기록 및 보존(인터넷 아카이브의 경우)

- 용이한 접근 및 정보의 공개 등 아카이브 존립 기반의 변화 -민주화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 친화적 기관으로 전환 필요

RI3650 아카이빙의 향후과제

사료의 범위를 다음의 5가지 대분류로 나눌 수 있다.

- 1) 국제로타리
- 2) 존9, 10A
- 3) 3650지구
- 4) 각 클럽
- 5) 기타

그리고 5가지 대분류에 따른 디지털 아카이빙의 수집범위를 살펴보자.

- 1) 국제로타리 : 세계대회 자료, RI회장, 앰블렘, 연차구호, 로타리 잡지, 각종 인쇄물, 공문 등
- 2) 존9, 10A : 각 지구 간행물, 박물 등 관련 자료
- 3) 3650지구 : 지구대회, 총재 관련자료 및 기념품 등 사료
- 4) 각 클럽 : 클럽별 주보, 연감 등 각종 간행물 등
- 5) 기타

아카이빙의 단계별 추진계획

지구 사료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1단계(2017. 7~2017. 12) : 시스템 구축, 장비(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스캐너 등) 및 기록물 공간 마련
- 2단계(2018. 1~2018. 12) : 회원 및 클럽을 대상으로 각종 사료 수집(디지털라이징)
- 3단계(2019. 1~2019. 12) : 수집된 각종 기록물의 체계화 작업

이렇게 3단계 작업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흩어져 있던 사료들을 한데 모아 한국 로타리 100년을 정립하는 작업을 착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회원들께서는 소장하고 있는 로타리 관련 각종 사료와 소장품 기증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